

學會誌 論文審査過程에 대하여

卞 增 男*

차 례

- I. 머릿 말
- II. 대한전기학회지의 논문심사과정
- III. 외국학술논문지의 논문심사과정 에
 - 1. IEEE의 경우
 - 2. AIAA의 경우
- IV. 대한전기학회지 논문심사과정에 대한 제안
참고문헌

I. 머릿 말

대한전기학회는 제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체인 1947년에 창립된 우리나라 학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중의 하나로서, 지금은 여타 학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기반 위에서 대내적으로는 전기공학 분야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국제적 교류를 지속해온 진취적이고 모범적인 학회임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물론, 그동안의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여건속에서도 본 학회를 지키고 키우려는 여러 선배임원과 회원들의 단결과 노력의 열매요, 지난날의 가난을 극복한 지혜를 계승한 현역임원 여러분과 회원들이 보다 나은 학회를 위해서 아량과 희생심을 갖고 끊임없이 애쓰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인은 지난 79—80년의 기간중 본 학회 학회지 편수위원 및 대한전자 공학회지 편집위원으로 일한 영예를 가졌었으나 별로 한 일이 없었던 부끄러움과 아쉬움속에서 지내던 중, 본인이 몇몇 위원들과 함께 명소에 생각해 오던 전기 및 전자공학분야 논문심사과정에 대한 의견을 성문화 시킬 것을 요청받고, 의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뜻에서 본 글월을 통하여 학회지 발간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단, 본학회지 편수위원장의 허락하에 본 글월중 제안내용과 설명의 일부를 이미 대한전자공학회 잡지에 기고된 내용과 중복되도록 작성하였음에 대하여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학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서 학회의 주관하에 수행되는 학술논문지의 발간이었다. 학술논문지는, 보통, 정규논문집(Journal 혹은 Transaction)과 학술발표논문집(Conference Proceedings)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종류에 실리는 논문들은 모두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정규논문집은 그 구성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완전한 것이 되도록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고 학술발표 논문집은 빠른 최신의 연구 및 기술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최근의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실도록 한다. 학회에 따라서는 특히 후자의 기능을 중요시 하여 속보(速報)형식의 불리틴(Bulletin)들을 발간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학회의 둘째 기능으로는 전기공학에 관련된 많은 분야를 학술적, 기술적, 지역적 특색을 살려 구분하고, 각 분야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등급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이다. 예컨대, IEEE의 경우를 보면, Student Member, Member, Senior Member 및 Fellow 등으로 회원의 등급을 나누고 있다. 이때 Fellow의 칭호는 특정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사람이나, 많은 기술발전을 이룩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이러한 기능과 관련하여 학회에서는 우수한 학술논문이나 혁혁한 기술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학술상(Award) 또는 Medal 등을 수여함으로써 수상자들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이것은 각 전문분야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Fellow나 수상자가 되기를 희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학술 활동을 진작시킨다는 의도도 있다. 또한 학회운영상 이들 Fellow나 Medal 수상자들을 학회임원진 구성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학회가 중요한 공학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正會員: 韓國科學技術院 電氣·電子科 副教授·工博

세계로는 공학분야에 있어서의 윤리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기능으로서, 직업적인 행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적인 공학자 및 기술인의 자세에 대하여 꾸준히 회원들을 계몽하는 역할이다. 이것은 공학자들이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비판하고 타인을 신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인간관계를 조성하게 하는, 간접적인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학회역할인 것이다.

학회의 네째 기능으로는 기술 수준의 표준화, 안전도의 규격화, 전문용어의 통일화 등을 이룩하는 일로서 직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려운 역할 중의 하나이다.

다섯째로는 최신 기술의 분배와 교육, 또는 선진외국의 신기술 도입과 그 활용을 도모하는 기능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 필요한 역할이 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 정보의 교환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러므로 학회가 주관이 되어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혹은 특정전문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현재의 세계기술 수준을 가늠해 봄으로써, 국내의 전기공학 종사자들에게 좋은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국내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일정기간의 기술강좌를 여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끝마친 고급 두뇌들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은 결국 재교육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업무를 학회가 일부 담당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인 것이다.

본 학회가 창립된 후 최근 몇년전까지만 해도 고급인력의 부족 등으로 적절한 부피의 학회지를 발간하기에 논문편수가 부족한 형편이 계속되었다(표 1 참조). 그러나 근년에 들어 경제적인 성장을 밑받침으로 고급인력 개발에 적극 투자한 바, 대학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해외의 한국인 과학자의 적극적인 유치로서 많은 고급인력이 학회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논문의 발표는 자기의 유용한 연구결과를 타인과 공유하겠다는 숭고한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논문의 질과 양은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되고 있어 학교의 경우 진급 등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추세로 보아 앞으로 보다 많은 학술논문이 학회에 제출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i) 학회지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ii) 질적으로 보다

우수한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본학회에서는 지난 1979년부터 년 6회 발행하던 학회지를 년 12회로 발행회수를 증가시킴으로 전자의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학회의 운영편과 학회지의 질적 향상이 요청되는 관점에서 이러한 방법은 더 이상 당분간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후자의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규격화되고 객관적인 심사방법 및 기준이 요청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본 글월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학회의 주 기능 중의 하나인 논문지 발간을 중심으로 현 대한전기학회의 논문심사과정과, 외국의 실제 몇몇과를 비교하고 본학회 논문심사과정 및 논문의 형식에 대한 보완 사항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 2절에서 현 대한전기학회의 논문 심사방법 및 기준을 기술하고 조사결과를 수록하며 제 3절에서는 몇몇 외국 학술논문지의 심사방법과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하고 제 4절에서 보완된 논문심사 방법과 논문형식 등을 제안하여 일종의 규격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대한전기학회지 논문발행 상황

년 도	권 (Volume)	제 출 논문수	게재된 논문수	게재불가능논문수 (반려비)
1948. 10.	창간호		1	
1962	11		8	
63	12		17	
64	13		15	
65	14		17	
66	15		9	
67	16		13	
68	17		17	
69	18		15	
70	19		16	
71	20		19	
72	21		22	
73	22		31	
74	23		21	
75	24	44	30	14(32%)
76	25	32	26	6(19%)
77	26	45	35	10(22%)
78	27	27	21	6(22%)
79	28	45	39	6(13%)
80	29	43	39	4(0.9%)

- (1) 본 자료는 대한전기학회 사무실 제공 자료임.
- (2) 1949년부터 1961년까지 논문발행이 없었음.
- (3) 제출논문수에 대한 기록은 1975년 이후에 한한 기록만 남아 있음.

II. 대한전기학회지의 논문심사 과정

대한 전기학회에서는 현재 1년에 12호의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학회지는 매권마다 대략 3권—5권 정도의 논문을 포함하며, 상당한 지면이 할애되어 기술동향, 기술해설 또는 기술정보 등으로 분류되는 기술기사(技術記事)가 실린다. 본 학회지에 실리는 모든 논문 및 기술기사의 채택은 매월 열리는 편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편수위원회는 조직상 편수위원장 밑에 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인의 부위원장과 각 전문분야별로 선택된 10인의 전문 편수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2개의 분과로 나눈 것은 편수위원들이 2개월에 한번씩 편수회의에 참석토록 배려하기 위하여 나눈 것이며, 따라서 2개의 분과는 하는 업무가 서로 같다. 편수위원회에서 전문분야라 함은

1. 전기물리
2. 회로 및 시스템
3. 전기기기
4. 전 력
5. 재 료
6. 전기응용
7. 전동력응용
8. 제어제측
9. Electronics
10. 정보공학

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분야별 소속 전문편수위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현재 채택되고 있는 전기학회 논문심사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먼저 논문이 학회 사무실에 접수되면, 접수날짜가 기록되고 가장 가까운 장래에 열리는 편수위원회에 송부된다. 2개의 분과가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하므로, 편수위원회는 매월 1회씩 개최되는 셈이며 따라서 제출된 논문들은 1개월 간격으로 편수위원회에 송부되는 셈이다. 편수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논문을 위원들에게 보이고, 논문의 내용 및 테마를 참작하여 2명의 논문심사위원을 결정하는데, 이 결정은 해당전문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 중 2—3명이 구두로 추천되고 이를 위원회에서 중의를 물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하여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후 채택여부에 관한 의견을 1. 가, 2. 수정후 가, 3. 불가로 구분하여 편수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준다. 두 심사위원이 모두 채택불가

로 의견을 통보해 온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경우, 즉, 한 사람은 채택불가로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채택가(또는 수정후 가)로 되는 경우, 규정에는 본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편수위원장, 부위원장, 해당전문분야 편수위원 및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은 제삼의 논문심사위원을 지정, 이에 게 위촉한 결과에 따라 가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수정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채택가의 결정이 날 때까지 논문제출자는 수정 제출하고 심사위원은 이를 재심사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III. 외국 학술 논문지의 논문 심사 과정 예

1. IEEE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IEEE는 34종의 정규논문집(Transaction)과 IEEE Proceeding을 발간하고 또 학술발표논문집(Conference Proceedings) 등을 펴내고 있다. 각각의 정규논문집은 조금씩 다른 심사과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에게 익숙한 T-AC 및 T-IECI 두 논문지의 심사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T-AC의 경우 논문 제출자는 논문 7부를 총편집위원장에게 보내면, 논문수명확인 엽서를 제출자에게 보낼과 동시에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13명의 전문분과 편집위원장(Technical Committed Chairman)중 한 사람을 택하여 해당논문을 발송한다. 전문분과 편집위원장은 5사람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아 3편이상의 가치 있는 논문심사의견서를 골라 자신의 의견을 첨부 종합하여 전체편집위원회(Information Desemination Committee)에 제출한다. 1년에 2회 소집되는 본전체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게재(Accept), 수정후 게재(Accept after Revision), 수정 및 재심사후 게재(Accept after Revision and Rereview) 및 게재불가(Reject) 등의 결정과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 논문 성격상 Regular paper, Short paper 및 Technical correspondence 등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논문제출자가 미리 논문의 성격상 Technical correspondence로 제출하는 경우 심사과정이 약간 간편해진다.

T-IECI의 논문심사과정은 2년전 논문지 편집위원장이 간결한 Flowchart의 형식으로 IECI Paper Review Procedure를 발표(T-IECI Vol. 25, No. 3 August 1978 p.205 참조)하였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AIAA의 경우

미국의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²⁾

(i) 제출된 논문은 Scientific Publications Department를 거쳐 총 편집위원장에게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subject scope, apparent technical validity, topical importance, timeliness, advance over prior publication, conciseness of reporting, completeness of references, editorial style, length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만약 이상 열거한 사항중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반송하고, O.K.인 경우 제출된 논문 내용에 가장 적합한 편집위원에게 발송한다.

(ii) 편집위원은 2명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심사를 위한 몇가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에 맞추어 심사평을 적도록 한다.

(iii) 편집위원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서를 접수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규격화된 Checklist에 표시하여 논문제출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일차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총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iv) 편집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여부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하며, 논문을 거절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한다.

다른 학회와 달리 본학회의 경우, 심사과정, 심사기준, 제출자의 반박과정, 심사의견서, 편집위원용 Checklist 등이 모두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으로 논문제출자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인쇄물로 받아 알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논문심사의견서는 구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의견서작성과정을 적절히 유도하고 있다.

IV. 대한전기학회지 논문심사과정에 대한 제안

서론 및 제 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접수되는 논문 편수에 대한 양적인 팽창에 대한 대책으로서 본 학회 논문심사과정이 다소 수정보완 강화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A. 논문의 구분 및 논문심사 위원선정에 관하여

제 2절에서 열거한 10개의 전문분야는 전기공학분야를 다시 전문전공별로 세분한 것으로서 제출된 논문의 내용이 이들 전문 분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논문투고 규정을 보완하여, 논문제출자로 하여금 논문의 주제마가 이들 10개의 전문분야 중 어느 전문

분야의 내용에 가장 가까운가를 결정하여 이를 논문상단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수위원장 또는 부위원장들이 논문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수 있겠다. 일단 논문의 전공분야가 구분되어 결정이 되면 위원장은 이를 분야담당 전문편수위원에게 송부하고, 그 편수위원이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의뢰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문편수위원은 긴 방명록을 갖고 이들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2,3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비하여 현행 심사위원 선정방법은 편수위원회에서 논문제목과 개요를 보고 즉석에서 구두추천으로 선정이 진행되어 다소 즉흥적인 면이 있고, 해당 전문분야에서 매우 잘 알려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새로이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위를 받지 않았더라도 한 분야에 처음으로 논문을 제출한 신진들에게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의뢰를 하는데 이것은, 신진들이 매우 꼼꼼하고, 성실하게 논문심사를 행하여, 특히 여러가지 Technical한 mistakes를 잘 꼬집어 내기도 하려니와 또 한편은 새로운 권위를 양성한다는 긴 안목의 포석도 있으리라 본다. 우리 학회의 경우에도 만약 전문편수위원이 책임지고 심사위원을 선택하도록 되면 권위자와 신진을 균형있게 선정시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B. 논문심사 위원수 증원에 대하여

논문심사위원의 수를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증원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전문편수위원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심사의견서를 기한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으로 제안되는 것이다. 가끔, 논문심사의뢰서를 받은 심사위원 2명중 1명이 해외여행 또는 기타의 이유로 몇달이 지나도록 심사를 기한내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논문심사 의견이 성의 없이 보이도록 작성이 되어 논문에 대한 검토 평가자료가 되기 힘들 경우가 있음을 가끔 경험하였다. 그러나, 만약 3인의 전문가에게 심사의뢰를 한 후 전문편수위원으로 하여금 2인이상의 책임있는 심사의견서를 선정하여 논문 평가자료로 쓰도록 하면 상기한 불편한 경우가 많이 지양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C. 편수위원회에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현행 논문심사과정에서의 편수위원의 역할은 “논문심사위원회 선정”이 실질적인 주된 기능이며, 편수위원회에서의 논문 게재 여부 결정은 논문 심사의견서에

중한 공식적인 결정일 뿐이다. 특히 논문심사위원 중 한 분은 게재 무방으로 하고 다른 한분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는 경우, 게재불가 이유가 매우 타당하다라고 보통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가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심사한 분이 게재무방으로 답이 오면 논문이 게재케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 편수위원의 의견반영을 할 틈이 별로 없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회의 운영방법인 것이다. 또한 접수되는 논문 중에는 논문의 형식(Format)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너무 길거나, 요약, 제목, 참고문헌, 그림 등이 잘 구성되지 않아서 검토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철차상 무조건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한 여타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편수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이 본 학회지 형식에 매우 어긋났다고 생각되는 경우, 일단 논문 저자에게 프린트 된 논문작성요령과 함께 반송하여 다시 쓸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논문게재 여부의 추천은 일차적으로 전향에서 제안된 바와 같은 해당분야 전문편수위원이 2명 이상의 논문 의견서를 취합 참조하고 편수위원 자신이 검토한 의견을 종합하여 편수위원장에게 게재여부 및 수정 요구사항들을 추천하도록 한다.

(3) 편수위원장은 편수위원회회를 통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할 시는 논문 게재불가 사유를 기록하여 통고한다.

논문 심사 요지

페이지	행	수정할 곳 또는 의문나는 점
기타의견		
심사종명		
채택여부에 관한 의견		
가 () 수정후 가 () 불가 ()		
19 년 월		
심사위원		인

D. 논문 심사요지의 형식

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논문심사의뢰서함과 함께 논문심사요지를 받는다.

이상과 같은 현재의 양식은 간단하여, 특히 논문심사를 처음 의뢰 받는 위원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된 형식을 갖는 심사의뢰서를 제안한다. 이 형식은 AIAA의 형식²⁾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첨언한다.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제목 :

논문접수번호 :

심사의뢰일

심사완료요망일

심사완료일

논문심사를 위한 지침사항

논문심사위원회에서는 특히 논문이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가를 유의하며 심사하시기를 요망합니다.

1. 논문제목 : 논문내용에 적합한가 여부.
2. 요약(abstract) : 논문의 목적, 내용, 주요결과 등이 간략하고 적합하게 요약되었는가의 여부. 영문 abstract는 국문요약을 훌륭하게 번역하였는가의 여부.
3. 서론 : 논문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의 관계 등이 적절하게 기술되었는가의 여부.
4. 논문내용 : 연구방법, 연구결과와 유도과정, 연구결과에의 검토 및 유용성, 응용성 등이 간결하고 분명하게 기술되었는가의 여부.
5. 논문의 형식 : 논문의 길이에 대하여, 논문이 좀더 간결하게 구성될 수 있는가의 여부. 참고문헌은 적절히 인용되었는가의 여부, 기타 사용된 기호나 그림 등은 적절하게 표현되었는가 등.

논문심사평

연구내용의 학술적 가치, 기술적 오류여부, 상기한 지침사항에 비취 수정할 곳 등, 귀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논문에서 쓰이는 중요한 핵심용어를 열단어 이내로 하여 적도록 하고 이를 요약, 주요 핵심용어, 서론 등의 순서로 논문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상 제안된 내용을 요약하여 제안된 논문 심사과정의 Flowchart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참 고 문 헌

F. 기타 제안 사항

- a) 논문이 접수되면 일단 논문 접수번호를 주고, 편수위원장의 이름으로 논문 제출자에게 틀림없이 ××일자로 접수하였음을엽서로 통보할 것.
- b) 논문 게재결정이 나면 편수위원장의 이름으로 논문의 게재결정이 되었음을 통보할 것.
- c) 1년에 한번씩 학회지에 논문심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여러분의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논문심사료는 생략한다.
- d)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과정이 끝나면, 해당편수위원은 각 심사위원에게 (i) 심사에 대한 편수위원회의 결정을 통고하고 아울러 (ii) 타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을 익명인 상태로 복사해서 보여 주도록 할 것. 이것은 보다 건실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정제환(Postive Feedback)의 역할을 할 것이다.
- e) 학회로 제출되는 논문의 수가 현재에 비교하여 매우 많아지는 경우에는 논문을 정규논문(Regular Paper)과 단편논문(Short Paper)로 나누어 심사 게재토록 한다.

- 1) E.I. Axelband, "The IDC", IEEE Trans. Automat, Contr., Vol. AC-20 No. 5, p.589, 1975.
- 2) Acceptance Procedure for Archive Journals of AIAA, Journal of AIAA, June 1977.
- 3) S.J. Vahaviolos, "IECI Paper Review Procedure", IEEE Trans. Ind. Elec. and Contr., Instrum, Vol. IECI-25, No. 3, p.205, 1978.
- 4) General Information, Journal of Optim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s, Vol. 18, No. 3, pp. 435~439, 1976.
- 5) D.G. Fink, "The Role of Scientific and Engineering Societies in Development; Present Perspectives and Future Prospects," IEEE Trans. Aero. and Elec. Sys., Vol. AES-15, No. 6, pp.777~786, 1979.
- 6) 변증남, "학회지 논문심사과정에 대한 제안", 대한전자공학회잡지 1980. 3월호 예정.

電氣用語集 發刊案内

今般 當學會에서는 電氣工學을 研究하는 電氣人 및 學徒들의 學術研究에 寄與하도록 하는 한편 電氣業界 및 關聯分野의 現場에서 從事하는 實務者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電氣用語集(18,000單語)을 發刊하여 低廉한 價格으로 보급하고저 하오니 많이 活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發刊豫定日 : 1981年 4月

社團法人 大韓電氣學會